

간호학교 교육과정 발전을 위한 기초 일 조사

(부산시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교

차 선 정

<차 례>

I. 서 론	IV. 고 찰
II. 조사방법	V. 결론 및 제언
III. 조사결과 및 해석	영문초록
	참고문헌

I. 서 론

최근 인간이 이룩한 다양한 과학의 발전은 과거 어느 시대보다 그 질과 양에 있어서 경이적인 결과를 가져 왔으며 인간의 일상생활에도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초래하고 있어 간호 교육도 그 발전을 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에 현대적 간호교육이 도입된지 60여년을 경과 하는 동안 우리 간호교육은 양적으로 성장하고 구조적으로 개선되는, 그 변화 과정에서 교육제도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에 혁혁한 발전을 이루워 우리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요청에 이바지하고 있음은 사실이지만, 특히 최근 우리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간호분야의 질적 함양과 양적 수급 요청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간호교육에 영향을 주는 제 요소, 즉 일반 사회교육, 간호 자체교육 각 분야의 발달과 영향의 요인을 실제적으로 연구 검토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 요청된다.

더욱이 최근에는 간호원의 해외 진출이 급증되고 있어 간호원의 양적 확보에 따라 간호학교 학생 수요가 급증했으며 1968년은 1966년에 비해 157%의 급격한 학생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¹⁾, 한국 제 2의 도시인 부산에만 보더라도 1969년까지는 2개의 간호학교에 274명의 학생이었는데 1971년 9월 현재 5개의 간호학교에 759명의 학생으로 277%의 급격한 학생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이 양적으로 팽창하는 간호학생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지도하며 그 질을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중대한 문제에 직면하여 전국적인 문제는 흥등²⁾의 간호학과를 중심으로 연구 보고된바 있으나 지역별로 특히 여러가지 모순점을 내포하고 있는 간호학교의 교육과정에 대하여 현재까지 간호교육 담당자 또는 지부 간호협회에서 부분적으로 논하였을 뿐 종합적이고 객관적인 교육계획에 문제점을 제시한 보고서가 없었기에 부산시 간호교육 과정 문제점을 찾아 비교함으로써 지도 방안을 모색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한다.

II. 조사 방법

1. 조사기간 및 대상

본조사는 1971년 4월 17일부터 7월 15일까지 부산시내에 있는 교수 24명과 4개 간호학교에 2학년 이상 학생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문제점등을 조사하였다.

2. 조사자료 및 방법

조사자료는 현재 간호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육과정을 참조하고 각학교 학급에 들어가 질문지를 배부하여 체크한 후 동시에 견도록 했다.

III. 조사결과 및 해석

1) 학교별, 연령분포, 경력, 학생들 본적지 빈도는 <표-1><표-2><표-3><표-4>와 같다.

<표-1> 조사 인원수 274명

학 교 별	교수수	학생수
부산의대 간호학교	10	110
메리놀 간호학교	5	52
복음 간호학교	3	38
춘해 간호학교	5	50
대동 간호학교	1	0
계	24	250

<표-2> 교수의 연령 분포

연령	실수·%	실 수	%
20-25		3	13
26-30		8	33
31-35		11	46
36-40		2	8
40이상		0	0
계		24	100

<표-3> 교수의 경력

년	분야		교육경력		임상경력	
	실수	%	실수	%	실수	%
1-5	16	68	19	79		
6-10	7	25	2	8		
11년이상	1	4	0	0		
없음	0	0	3	11		
계	24	100	24	100		

<표-4> 학생들 본적지 빈도

지역	실수·%	실 수	%
부산시		116	46.4
경남		94	37.6
서울		12	4.8
경북		20	8.0
경기도		4	1.6
충북		3	1.2
전북		1	0.4
계		250	100.0

2. 부산시 간호학교의 교육과정 발달

상황은 <표-5>에서와 같이 부산의대 간호학교는 고등학교에서 1962년 1월 18일에 승격되었으며 졸업생수는 535명에 14회 졸업생을 냈으며, 메리놀 간호학교는 1964년 3월 설립되어 5회 졸업에 80명 졸업생을 냈으며, 춘해간호학교는 1968년 3월 설립되어 1회 졸업에 37명 졸업생을 냈으며, 복음간호학교는 1968년 3월 설립해서 1회 졸업에 19명의 졸업생을 냈다.

<표-5> 부산시 간호학교 교육과정 발달상황(1971년 7월 현재)

학 교 명	종 별	설립(승격) 년 월 일	첫수료식 인	재학생수	졸업생수	회 수	입학자적연령(세)
부산의대간교	국 립	1962.1.18 승격	1958.3	334	535	14	18-25
메리놀 간교	카톨릭	1964.3	1967.9	99	80	5	18-30
춘 해 간교	사 립	1968.3	1971.2	187	37	1	18-30
복 음 간교	기독교	1968.3	1971.2	79	19	1	18-25
대 동 간교	사 립	1971.3	—	60	—	—	18-25

3. 각학교별 교과내용 비교

<표-6>에서와 같이 문교부 안이 교양과목 11 과목, 기초 5 과목, 전공 19 과목 총 35 과목, A.F. Brown²⁾씨가 주장하는 과목은 교양 13 과목 기초 7 과목, 전공 9 과목, 총 29 과목으로 B 학교는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ACD 교는 문교부 안을 거의 맞추워 가고 있다.

<표-7>에서와 같이 주당시간과 취득학점은 A 간호학교 주당 1 학기에 27 시간 2 학기 26 시간 총학점 150 학점, B 간호학교 주당 1 학기 30 시간 2 학기 25 시간 학점제가 아니므로 총학점은 조사할 수 없었으며, C 교는 주당 1 학기 38 시간 2 학기 23 시간 총 159 학점, D 간호학교는 주당 1 학기 32 시간 2 학기 29 시간 총 145.5 학점을 이수도록 하고 있었다.

<표-8>에서와 같이 실험실습 시간과 전공과목에 있어서 문교부 현황 실습시간은 2700 시간(67.7%) 전공과목은 1290 시간(32.3%)인데 평균 실습시간 2566 시간(64%) 전공과목 1446 시간(36%)로써 문교부 배당과 거의 비슷하게 따라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8> 학교별 교과내용 비중 비교표

학교별	과목별		문교부 현황		A		B		C		D		계	
	실 수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험실습시간	2,700	67.7	2,848	66.1	2,347	66.6	2,690	66.9	2,380	56.4	2,566	64		
전 공 과 목	1,290	32.3	1,456	33.9	1,156	32.9	1,336	33.1	1,836	43.7	1,446	36		
계	3,990	100	4,304	100.0	3,509	100	4,026	100	4,216	100	4,012	100		

4. 간호학을 선택하게 된 동기와 선택후 반응

<표-9>에서와 같이 선택동기에 부모,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 56명(26%)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장래 가정생활에 필요하므로 54명(21.6%) 직업안정 40명(16%) 봉사생활 30명(11%) 해외진출이 쉬우므로 28명(10%) 나이팅젤 업적을 동경하여 26명(9%)로 낮은 빈도를 보이고 "존경을 받음" 문항에는 거의 반응을 볼 수 없다.

<표-6> 과목수 비교

학교별	과목별	교 양	기 초	전 공	총과목수
문교부안		11	5	19	35
A.F Brown		13	7	9	29
간호학교 A		10	6	17	33
간호학교 B		13	6	10	29
간호학교 C		6	8	17	31
간호학교 D		—	—	—	—

<표-7> 대학과정과 간호학교 과정의 교과내용 비중 비교표

학교별	1 학년		학년별 취득학점				총 학 점
	1 학기	2 학기	1 년	2 년	3 년	4 년	
대학과정	23	28	46	43.5	40	32	161.5
간호학교 A	27	26	60	46	44	—	150
간호학교 B	30	25	—	—	—	—	—
간호학교 C	38	23	56	55	48	—	159
간호학교 D	32	29	—	—	—	—	—

<표-9> 간호학을 택하게 된 동기는

학 교	A		B		C		D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나이팅젤 업적 동경	14	12.7	6	11	0	0	6	12	26	10
부모 선생님 권유	18	16.4	10	19	20	53	8	16	56	22
직업 안정	8	7.2	14	26	4	10.5	14	28	40	16
장래 가정생활 안정	30	27.2	10	19	6	16	8	16	54	21
해의 진출	14	12.7	8	16	4	10.5	2	4	28	12
봉사 생활	16	14.4	4	9	2	5	8	16	30	13
존경을 받음	0	0	0	0	0	0	0	0	0	0
취 미	10	9	6	11	2	5	4	8	16	6.4
계	110	100	52	100	38	100	50	100	250	100

<표-10> 선택후 그저 그렇다 152명(6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잘못 선택함 55명(23%) 대단히 만족함 43명(17%)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10> 선택후

학 교	A		B		C		D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대 단 히 만 족	20	18.1	6	12	5	13	12	24	43	17
그 저 그 령 다	66	60.0	40	76	18	47	28	56	152	60
잘 못 선택 함	24	21.8	6	12	15	40	10	20	55	23
계	110	100	52	100	38	100	50	100	250	100

<표-11>에서와 같이 잘못선택의 이유로는 무응답 78명(33%)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적성에 맞지 않음 54명(22%) 사회인식이 나쁨 52명(20%) 교수진이 마음에 들지 않음 42명(17%) 교육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음 24명(8%)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11> 잘못 선택 이유

학 교	A		B		C		D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적성에 맞지 않음	26	23.6	8	16	14	37	6	12	54	22
교육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음	16	14.5	8	16	0	0	0	0	24	8
교수진이 마음에 들지 않음	16	14.5	8	16	4	10.5	14	28	42	17
사회인식 나쁨	22	20	14	26	4	10.5	12	24	52	20
무 응 답	30	27.3	14	25	16	42	18	36	78	33
계	110	100	52	100	38	100	50	100	250	100

5. 교과 학습에 대한 반응

A. 교수에 있어서

<표-12>에서와 같이 교과과정 계획은 누가 합니까? 국립계통에서는 전직원 각자함 10명(100%)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사립계통에서는 전직원 각자함 12명(85.7%), 학교장이 함 2명(14.3%)의 빈도를 보이고, 대표직원회 문교부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표-12> 교과과정 계획은 누가 합니까?

<교수질문서>

요인	학교별 실수				국립		사립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전 직 원 각 자	10	100	12	85.7	22	92				
대 표 직 원 회	0	0	0	0	0	0				
학 교 장	0	0	2	14.3	2	8				
문 교 부	0	0	0	0	0	0				
계	10	100	14	100.0	24	100				

<표-13>에서와 같이 교과과정 계획시 학생 참여는 안한다 14명(58%)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며 한다는 3명(13%)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13> 교과과정 계획시 학생참여

(교수질문서)

요인	교육경력 실수			1-5년		6-10년		11년이상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한 다	2	10	1	14	0	0	3	13			
안 한 다	7	45	6	86	1	100	14	58			
필요시 마 다 한 다	7	55	0	0	0	0	7	29			
계	16	100	7	100	1	100	24	100			

<표-14>에서와 같이 교과과정의 정기적 검열은 학교장이 함에 20명(85.7%) 전직원 각자함 3명(21.4%) 대표직원회 1명(7.1%)으로 낮은 빈도를 보이고 문교부는 반응이 없어 보이고 있다.

<표-14> 교과과정의 정기적 검열은

교수질문서

요인	학교별 실수				국립		사립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전직원 각자	0	0	3	21.4	3	10.6				
대표 직원회	0	0	1	7.1	1	3.7				
학 교 장	10	100	10	71.5	20	85.7				
문 교 부	0	0	0	0	0	0				
계	10	100	14	100.0	24	100.0				

<표-15> 교과과정 검토시기는?

교수질문서

요인	교육경력 실수			1-5년		6-10년		11년이상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매 학 기 마 다	14	87	5	71	0	0	19	79.2			
매 년	0	0	2	29	1	100	3	12.7			
2 년 마 다	0	0	0	0	0	0	0	0			
필요하면 수시로	2	13	0	0	0	0	2	8.1			
계	16	100	7	100	1	100	24	100.0			

<표-15> 교과과정 검토시기는 매학기마다 19명(79.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매년 3명(12.7%), 필요로 하면 수시로 2명(8.1%), 2년마다에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표-16>이서와 같이 성적평가 방법은 학생들 실력향상 측정도록 노력 10명(41.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학교에서 지정시간 9명(37.7%), 수시로 본다 5명(20.7%), 학습태도 고려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표-16> 성적평가 방법

교수질문서

요인	교육경험 실수	1-5년		6-10년		11년이상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학교에 지정시간		7	43.7	2	28.6	0	0	9	37.7
수시로 본다		5	31.1	0	0	0	0	5	20.7
학생들 실력향상 측정도록 노력		4	25.2	5	71.4	1	100	10	41.6
학습태도는 고려		0	0	0	0	0	0	0	0
계		16	100.0	7	100.0	1	100	24	100.0

<표-17>이서와 같이 강의시간에 보조재료는 Film Slide 15명(6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Bulletin Boards Model은 4명(15%) Chart 1명(10%) Record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표-17> 강의시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보조재료

교수질문서

종류	학교별 실수	국립		사립		계	
		실수	%	실수	%	실수	%
Film Slide		5	10	10	71	15	63
Chart		1	10	0	0	1	4
Record		0	0	0	0	0	0
Bulletin Boards		1	10	3	21	4	15
Model		3	30	1	8	4	15
기타		0	0	0	0	0	0
계		10	100	14	100	24	100

B. 학생질문서

<표-18>이서와 같이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 교수법은 강의중심 108명(43%)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실습중심은 79명(32%), 암기중심 56명(22%), 학생활동중심 7명(3%)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18>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 교수법

요인	학교 실수	A		B		C		D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강의중심		70	63.6	20	39	18	47.5	0	0	108	43
실습중심		16	14.5	21	40	4	10.5	38	76	79	32
암기중심		22	20.1	10	19	16	42	8	16	56	22
학생활동중심		2	1.8	1	2	0	0	4	8	7	3
계		110	100.0	52	100	38	100	50	100	250	100

<표-19>에서와 같이 전공과목 관계분야의 강사 초청만족도는 그저그렇다 118명(47%)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불만하다 72명(28%) 만족함 44명(19%) 대단히 만족함 16명(6%)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19> 전공과목 관계분야의 강사초청 만족도

학 교	A		B		C		D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대 단 히 만 족 함	8	7.3	0	0	6	16	2	4	16	6
만 족 함	12	10.9	12	23.1	10	26	10	20	44	19
그 저 그 령 다	50	45.4	26	50	16	42	26	52	118	47
불 만 하 다	40	36.3	14	26.3	6	16	12	24	72	28
대 단 히 불 만 하 다	0	0	0	0	0	0	0	0	0	0
계	110	100	52	100	38	100	50	100	250	100

<표-20>에서와 같이 강의시 보조재료 사용은 효과적이다 122명(53%)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그저그렇다 62명(25%) 효과 거의 없다 44명(13%) 대단히 효과적이다 16명(7%) 아주 효과 없다 6명(2%)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20> 강의시 보조재료 사용

학 교	A		B		C		D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대 단 히 효 과 점 이 다	4	3.6	10	19	0	0	2	4	16	7
효 과 점 이 다	40	36.3	34	65.3	24	63	24	48	122	53
그 저 그 령 다	28	25.4	6	11.5	12	32	16	32	62	25
효 과 거 의 없 다	34	30.9	2	4	2	5	6	12	44	13
아 주 효 과 없 다	4	3.6	0	0	0	0	2	4	6	2
계	110	100	52	100	38	100	50	100	250	100

<표-21>에서와 같이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는 간호협회 출판물 132명(53%) 국내 출판물 61명(24%) 외국 출판물 39명(16%) 등사물 18명(7%)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21>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교재는

학 교	A		B		C		D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국 내 출 판 물	30	27.2	16	30.8	10	26.9	5	10	61	24
간 호 협 회 출 판 물	60	54.5	8	15.4	24	63.1	40	80	132	53
외 국 출 판 물	10	9	22	42.3	2	5.2	5	10	39	16
등 사 물	10	9	6	11.5	2	5.2	0	0	18	7
계	110	100	52	100	38	100	50	100	250	100

6. 간호학 임상실습에 관한 문제

A. 교수 질문서

<표-22>에서와 같이 임상실습시 담당하는 학생수는 국립에서 20명 이내 8명(80%), 사립은 5명 이내가 6명(42.8%)로 각각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많은 학생을 실습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2> 임상실습지 담당하는 학생수

교수질문서

학교별 실 수	국 립		사 립		계	
	실 수	%	실 수	%	실 수	%
학생수						
5 명 이 내	0	0	6	42.8	6	21.4
10 명 이 내	2	20	2	14.2	4	17.6
15 명 이 내	0	0	1	7.1	1	3.5
20 명 이 내	8	80	4	28	12	54
20 명 이 상	0	0	1	7.1	1	3.5
계	10	100	14	100	24	100.0

<표-23>에서와 같이 임상실습과 강의를 병행하고 있어 병행 잘 안됨이 15명(62.5%)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효과적으로 진행됨 9명(37.5%)로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23> 임상실습과 강의를 병행하는데 있어서

교수질문서

학교별 실 수	국 립		사 립		계	
	실 수	%	실 수	%	실 수	%
요 인						
효과적으로 진행	2	20	7	50	9	37.5
병행 잘 안됨	8	80	7	50	15	62.5
계	10	100	14	100	24	100.0

<표-24>에서와 같이 병행시 난점은 시설상의 문제 12명(51.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학생 지도만 못함 8명(32.8%) 간호원과 대인관계 3명(10.7%) 기타 1명(5.1%)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24> 병행시 난점은

교수질문서

학교별 실 수	국 립		사 립		계	
	실 수	%	실 수	%	실 수	%
요 인						
학생지도만 못함	3	30	5	35.7	8	32.8
간호원과 대인관계	0	0	3	21.4	3	10.7
시설상의 문제	6	60	6	42.9	12	51.4
기 타	1	10	0	0	1	5.1
계	10	100	14	100.0	24	100.0

B. 학생질문서

<표-25>에서와 같이 첫번 임상실습에서 느낀점은 불안했다가 92명(36.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기대가 컸다 80명(32%) 무서웠다 78명(31.6%)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26>에서와 같이 임상실습에서 도움이 되는 것은 Nursing Clinic 100명(40%) Case study 88명(35.6%) Ward conference 62명(24.4%)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27>에서와 같이 임상실습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 좋은가는 담당과목교수 106명(40.1%)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임상강사 64명(28%) 수간호원 52명(21%) 졸업간호원 28명

(10.9%)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25> 첫번 임상실습에서 느낀 점은?

학 교	A		B		C		D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불안했다	54	49	20	39	10	26.3	8	16	92	36.4
기대했다	22	20	22	42	18	47.4	18	36	80	32
무서웠다	34	30.9	10	19	10	26.3	24	28	78	31.6
계	110	100	52	100	38	100	50	100	250	100.0

<표-26> 임상실습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학 교	A		B		C		D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Nursing clinic(demonstration)	34	31	24	46	14	37	28	56	100	40
Case study	38	34	18	34	10	26	22	44	88	35.6
Ward conference	38	34	10	20	14	37	0	0	62	24.4
계	110	100	52	100	38	100	50	100	250	100.0

<표-27> 임상실습은 누가 담당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

학 교	A		B		C		D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담당 과 목 교 수	54	49	18	34.5	14	37	20	40	106	40.1
임 상 강 사	20	18.1	20	39.3	18	47	6	12	64	28
수 간 호 원	22	20	8	15	4	11	18	36	52	21
줄 업 간 호 원	14	12.0	6	11.2	2	5	6	12	28	10.9
계	110	100.0	52	100.0	38	100	50	100	250	100.0

<표-28>에서와 같이 임상실습교육에 대한 불만은 과중한 실습시간 94명(37%)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회의적인 실습 68명(25%) 비과학적인 실습 50명(22%) 불충분한 실습 38명(16%)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28> 임상실습 교육에 대한 불만은?

학 교	A		B		C		D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회 의 적 인 실 습	40	36.0	10	20	12	32	6	12	68	25
비 과학 적 인 실 습	20	18.1	6	11.5	16	42	8	16	50	22
불 충 분 한 실 습	10	9	4	7.1	2	5	22	44	38	16
과 중 한 실 습 시 간	40	36.0	32	61.4	8	21	14	28	94	37
계	110	100.0	52	100.0	38	100	50	100	250	100

<표-29>에서와 같이 임상실습중 문제점 이유는 인간관계 갈등 99명(39%) 생명취급 긴장감 85명(34%) 건강에 자신없음 38명(15%) 실습규정 엄격 28명(12%)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29> 임상실습 중 문제점 이유

학교 실수	A		B		C		D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습 규정 엄격	10	9	10	20	4	10.5	4	8	28	12
건강에 자신없음	14	12.7	12	23	4	10.5	8	16	38	15
인간관계 갈등	46	41.8	25	48	16	42	12	24	99	39
생명취급 긴장감	40	36.3	5	9	14	37	26	52	85	34
계	110	100	52	100	38	100	50	100	250	100

<표-30>에서와 같이 실습평가에 대하여 불공평 178명(66.5%)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그저 그렇다 56명(24.5%) 더 잘할 의욕이 생김 10명(6%) 공정하다 6명(3%)

<표-30> 실습 평가에 대하여

학교 실수	A		B		C		D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공정하다	0	0	4	7	0	0	2	4	6	3
더 잘할 의욕이 생김	0	0	2	4	6	16	2	4	10	6
그저 그렇다	20	18.2	12	23	14	37	10	20	56	24.5
불공평	90	81.8	34	66	18	47	36	72	178	66.5
계	110	100.0	52	100	38	100	50	100	250	100.0

7. 학교 생활에서 문제점과 해결

<표-31>에서와 같이 학교생활에서 문제점은 학교 강의와 임상실습의 차질 60명(22%)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과중한 임상실습 52명(18%) 참고서적 및 자료부족 44명(19%) 과외 활동 시간 부족 30명(14%) 교과목수가 많음 24명(11%) 기숙사 생활 적응 18명(7%)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몰라서 12명(5%) 학비곤란 10명(4%)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31> 학교생활에서 문제점

학교 실수	A		B		C		D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학비곤란	0	0	4	7	0	0	6	12	10	4
교과목수가 많음	4	3.6	20	39	0	0	0	0	24	11
과중한 임상실습	30	27.5	6	11.5	8	21	8	16	52	18
참고서적 및 자료부족	12	10.9	2	4	6	16	24	48	44	19
효과적인 학습방법을 모른다	0	0	0	0	8	21	4	8	12	5
기숙사 생활 적응	14	12.7	4	7	0	0	0	0	18	7
학교강의와 임상실습의 차질	40	36.3	6	11.5	8	21	6	12	60	22
과외 활동 시간 부족	10	9	10	20	8	21	2	4	30	14
계	110	100.0	52	100.0	38	100	50	100	250	100

<표-32>에서와 같이 모든 문제 해결 상담역자는 동료학생 107명(38.1%)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가족 친척 58명(24.3%) 졸업간호원 20명(8%) 담당과목교사 19명(7.6%) 성직자 17명(7%) 사감 15명(5%) 임상강사 10명(7%) 수간호원 의사 각각 2명씩(1%)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32> 모든 문제해결 상담역자는

요인	학교		A		B		C		D		계	
	실수	수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담 당 과 목 교 사	10	9	3	5.9	2	5	4	8	19	7.6		
임 상 강 사	4	3.9	4	7	0	0	2	4	10	7		
수 간 호 원	2	1.8	0	0	0	0	0	0	2	1		
사 감, 생 활 지 도 교 수	10	9	0	0	5	13	0	0	15	5		
출 업 간 호 원	4	3.6	8	16	4	11	4	8	20	8		
동 료 학 생	60	54.7	20	39	13	34	14	28	107	38.1		
의 사	0	0	0	0	0	0	2	4	2	1		
성 직 자	0	0	3	5.9	4	11	10	20	17	7		
가 족, 친 척	20	18	14	26	10	26	14	28	58	24.3		
계	110	100.0	52	100	38	100	50	100	250	100.0		

<표-33>에서와 같이 교수에 대한 불만은 교수진 불충분 110명(44%)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생과 거리감 84명(30%) 교수 편견 36명(17%) 자진부족 20명(9%)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33> 교수에 대한 불만

요인	학교		A		B		C		D		계	
	실수	수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교 수 진 불 충 분	46	41.8	26	50	20	53	18	36	110	44		
교 수 편 견	14	12.7	6	12	6	15	10	20	36	17		
학 생 과 거 리 감	44	40	14	26	8	21	18	36	84	30		
자 진 부 족	6	5.5	6	12	4	11	4	8	20	9		
계	110	100.0	52	100	38	100	50	100	250	100		

8. 학생 근무 희망분야

<표-34>에서와 같이 근무 희망분야는 해외진출 78명(33%)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임상간호 74명(30%) 간호교육 56명(19%) 조산간호와 간호행정은 각각 16명씩(6.5%) 보건간호는 10명(5%) 근무희망분야는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표-34> 근무 희망 분야

요인	학교		A		B		C		D		계	
	실수	수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실수	%
간 호 행 정	6	5.4	2	4	2	5	6	12	16	6.5		
간 호 교 육	34	30.9	10	19	2	5	10	20	56	19		
임 상 간 호	26	23.6	12	23	22	58	14	28	74	30		
보 건 간 호	2	1.8	2	4	4	11	2	4	10	5		
군 간 호	0	0	0	0	0	0	0	0	0	0		
조 산 간 호	8	7.4	0	0	2	5	6	12	16	6.5		
해 외 진 출	34	30.9	26	50	6	16	12	24	78	33		
계	110	100.0	52	100	38	100	50	100	250	100.0		

9. (교수직문서) 기타

<표-35>에서와 같이 도서실 전공서적 혜택은 약간 도움 13명(56.4%)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임 필요시 충분히 도움 7명(26.4%) 도움없음 4명(17.2%)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35> 도서실 전공서적 혜택

요인	국립		사립		계	
	실수	%	실수	%	실수	%
필요시 충분히 도움	1	10	6	42.8	7	26.4
약간 도움	7	70	6	42.8	13	56.4
도움없음	2	20	2	14.4	4	17.2
계	10	100	14	100.0	24	100.0

<표-36>에서와 같이 각종 위원회는 장학위원회가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과과정위원회 8명(18.2%) 학생지도위원회 5명(11.4%) 임상간호교육위원회 3명(6.8%) 입학위원회 2명(4.5%) 도서위원회 1명(2.3%)로 가장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36> 각종 위원회

요인	국립		사립		계	
	실수	%	실수	%	실수	%
입학위원회	0	0	2	9.1	2	4.5
임상간호교육위원회	0	0	3	13.7	3	6.8
장학위원회	10	100	3	13.7	13	56.8
진급위원회	0	0	0	0	0	0
교과과정위원회	0	0	8	36.5	8	18.2
학생지도위원회	0	0	5	22.7	5	11.4
도서위원회	0	0	1	4.5	1	2.3
계	10	100	22	100.0	32	100

IV. 고찰

1. 조사 학교별 교과내용의 비교

과목수 비교에 있어서 문교부 안은 총과목수 35인데 A교는 33과목 B교는 29과목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A교에 양호교사 자격증에 따르는 교직과목을 추가했기 때문이며, A.F Brown²⁾의 29과목은 종합화된 과목수로서 외국인이 경영하는 B교는 그에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그의 A.C.D교는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을 김영자³⁾의 보고한 서울시 대학 학점 배당면을 보면 3년제 간호학교가 4년제 대학과 거의 비슷한 학점을 3년 과정에 걸쳐 취득케 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무리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을 증명한다.

실습과 학과목의 비중을 보면 <표-8>에서와 같이 거의 문교부 방침에 따르고 있으나, 김영자³⁾의 보고에 보면 실습 57.3% 학과목 42.5%의 양상을 나타내어 문교부 방침과는 차이를 두고 있다.

대체로 교육과정은 교육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달라지며 Lambersten⁴⁾에 의하면 전문 간호 교육에 기본이 되는 자연과학 인문학 Professional Course 인 생물 화학 사회학 심리학 기타 간호에 관계되는 과학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시민으로써 또한 간호원으로써 성장 발달하려면 간호교육과 일반교육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Heidergerken⁵⁾은 전형적 간호교육과정에는 일반교양의 비중을 최소한 50%로 하고 간호교육과정에서 충분히 인문교육의 가치를 받기하려면 2년이나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 이수해야 한다고 했다.

2. 간호학을 선택하게 된 가장 큰 동기에 부모, 선생님 권유에 의해서 26%, 장래 가정생활 21% 비슷하게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데 김⁶⁾의 서울 이대 간호학생들의 선택동기 보고에는 가정생활에 이용할 수 있다. 31.5% 해외진출 27.3%, 공⁷⁾의 보고에서 장래 가정생활 필요 제 1위 해외진출 2위 김⁶⁾ 공⁷⁾과 비교할 때 해외진출은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간호초급대학 교육에 대한 여학생의 인식이 직업준비라기 보다는 현모양처로써 갖추어야 할 교양교육 정도로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3. 임상실습과 관련된 여러 질문에서 첫번 실습에서 불안했다 36.4%, 무서웠다 31.6% 위와 같은 반응은 학생들이 환자 또는 질병에 대한 기피감 불안감이 큰 문제가 되는것 같다.

4. 학교생활에서 모든 문제점 해결 상담역자는 동료학생 38%, 가족 친척 24%의 순위였는데 김⁶⁾의 보고에도 동료학생 52.7%, 부모친척 18.6%의 순위로 일치하고 있다.

5. 근무희망 분야에 해외진출 33%, 임상간호 30%, 간호교육 19%의 순위였는데 홍신영¹⁾ 등의 보고에도 위와 같이 일치하고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조사에서 목적인 부산시 간호학교 교육과정 문제점을 찾고 시정하므로써 교육과정 발전과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자료로써 교육과정 구성의 체반 원리를 고찰하였다. 여기서 교육과정 발달로부터 온 새로운 이념과 이로 인한 교육이념의 변화 간호학의 성격과 간호교육에 대한 사회적 요구 그리고 학생 개개인에 대한 새로운 관심들로부터 교육내용 방법, 평가에 이르기까지 전통 또는 주관적인 것보다 과학적인 방법을 선택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수 연령분포는 31-35才가 46%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수경력은 1-5년 사이가 79%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학생 본적지 빈도는 부산시가 46.4%, 경남이 37.6%로 부산을 비롯해서 근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입학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2. 부산시 간호학교는 국립계통 1 학교 종교단체계통 2 개 학교 사립계통 2 개 학교 모두 5 개 학교가 간호학교로써 극히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3. 각학교별 교과내용 비교는 과목수에 있어서 문교부안이 총 35 과목인데 비해 국립인 A 간호학교 33 과목을 제외하고는 모두 비슷하게 A.F.Brown의 29 과목을 따라 가고 있으며, 실습시간과 전공과목에 있어서 실험실습시간 64% 전공과목 36%로 문교부 배당시간과 거의 비슷하게 따라 가고 있다.

4. 간호학 선택동기에서 부모 선생님의 권유에 의해서 26% 장래 가정생활 필요 21.6% 직업 안정 16% 봉사생활은 13%로써 비교적 낮은 빈도를 보이고 해외진출 역시 12%로써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선택후 그저그렇다 60% 잘못 선택함 23% 대단히 만족함 17%의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잘못선택의 이유에 있어서 사회인식 2% 적성에 맞지 않음 22% 교수진이 마음에 들지 않음 42%로써 보이고 있음은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교수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이

다.

5. 교과 학습에 대한 반응에서 교과과정 계획시 학생참여도는 안한다 58%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한다는 13%로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교과과정 검토시기는 매학기마다 79.2%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으며,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 교수법은 강의중심 43%로 높은데 비하여 학생활동 중심이 3%로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음은 학생활동 중심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강의시 보조자료 사용은 효과적이다 53% 효과 거의 없다 13%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6. 임상실습시 교수에게 담당학생수는 20명 이내가 54%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5명 이내가 21.4%로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시정되어야 할 줄 믿는다. 학생에게 임상실습중 문제점은 과중한 실습시간이 37%로 <표-31> 학교생활 문제점에 2위를 찾아한 과중한 임상실습 18%와 관련된 문제로서 학생들은 과중한 학습량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8. 근무희망 분야는 해외진출이 입학등기와는 다르게 33%로써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임상간호 30%로써 역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9. 기타에 있어서 각학교 각종위원회는 장학 위원회 56.8% 교과과정 위원회 18.2% 학생지도 위원회 11.4%이며 그 이외에는 낮은 빈도를 보이고 있다.

제 언

1. 교육제도의 발전으로 선진국의 경향에서 낙오되지 말아야 하며 짧은 교육기간 동안 무리한 교육을 피해야겠으며, 교직과목이 양호교사 자격을 부여받기 위한 것이라면 간호교육을 받는자는 교직과목 이수에 관계없이 자격이 수여되도록 시정되어야 하겠다.

2. 교수의 교과과정 계획시 학생 참여는 비교적 참여시키는 빈도를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참여시키도록 할 것과, 강의 중심에서 학생활동 중심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수들에 대한 환경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3. 교수들의 임상 실습지도에 담당하는 학생수에 있어 <표-22>에서와 같이 54%가 20명 이내로 압도적으로 많은 빈도를 찾아했으며 <표-33> 교수에 대한 불만에 교수진 불충분 확보에 역시 44%의 높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어 전자의 영향이 후자에도 미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다. 흥¹⁾ 등의 보고에 전국적인 통계는 5명 이내가 30%, 10명 23%의 순위를 나타내고 있어 특히 부산지역의 교수들의 충분한 확보가 무엇보다도 시급한 문제라 할 수 있겠다.

4. 임상 실습평가의 학생 반응은 <표-30> 불공평 66.5%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는데 평가 방법에 대한 재검토와 지속적인 연구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상실습 성적에 공정을 기해야 할 것이다.

5. 모든 문제 해결 상담역자는 교수와 상의하는 비율이 아주 적고 동료 친구와 상의하는 비율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은 바람직한 문제 해결이나 방향 제시가 잘못되어진 것이라 보는 바 교수는 항상 학생의 생활을 관찰하고 평가하여 추후 지도를 힘써서 학생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6. 각학교 교수들 교육수행을 위해 각종 위원회 구성을 보면 국립보다 사립계통이 더욱 활발히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시정해야 할 줄 믿는다.

Abstract

Study of the Curriculum Development of Nursing Education in Pusan
Sun Jung Cha, B.S.
School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survey was conducted on 16 questions for 24 professors, 20 questions for 250 students following school such as Pusan National school of nursing, Maryknoll school of nursing, Boak oum school of nursing, Chun hae school of nursing in Pusan from April 17. to September 15. 1971.

The results of the evaluated were follows:

It was found that the most of students are majoring nursing, the reasons are

1. For future home life (21%)
2. For secure job(16%)

The feeling of clinical practice.

1. Expected too much (32%)
2. Unstabled(36.4%)
3. Fearful(31.6%)

The main problems whcih student nurses.

1. The gap between lecture and clinical practice (22%)
2. Over clinical practice(18%)
3. Unfairness of evaluation practice(66.5%)

As matter of fact. it was revealed that the professor's adequate clinical supervision was mainly attributed to the professor's excess workload consisting of lectures, and other duties. Professors and they also recognized that appraisalment of clinical experiences of students are often found to be biased.

In view of the findings of this study regarding the educational process and its principles of formation above, a few suggestions have been made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the Curriculum of nursing school in Pusan.

참 고 문 헌

1. 홍신영, 이영복, 이귀향, 한국 간호교육 개선을 위한 일 조사연구, 연세 간호대학학회지 제 2호, 1970, pp.1.
2. A.F. Brown, Curriculum Development, W.B. Saunders, Co., 1960.
3. 김영자, 기초 간호교육 과정에 관한 —예, 대한 간호, 통권 52호, 1971. pp. 77—93.
4. E.L. Lambersten, Education for Nursing leadership, J.B. Lippincott, Co., 1958.
5. L.E. Heidergerken, Teaching in school of Nursing, J.B. Lippincott, Co., 1953.
6. 김설자, 대학 간호학생의 직업에 관한 일조사, 이화 간호대학학회지 제 4호, 1970.
7. 공경자, 간호직에 대한 연구, 이화 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1966.
8. L.H. Gunter, The Developing Nursing student, Nursing Research, 1969.
9. E.K. Spalding, New direction in Pre-Service Education for Nursing, Nursing Out Look, 10:4, pp. 239-242, 1962.
10. 정범모, 교육과정, 중앙교육 출판사, 1961.
11. 부산대학교 요람 1971—1972, pp.291
12. 메리놀 간호학교 안내, 1969.
13. 복음간호학교 안내, 1970.
14. 춘해 호간학교 안내, 1970.